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은혜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F. Schubert의 가곡집  
《Schwanengesang》 D.957 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김정선

F. Schubert의 가곡집  
《Schwanengesang》 D.957 연구

강은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김정선

# 인 준 서

김정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이 은 영 인

심사위원 강 은 혜 인

심사위원 홍 청 의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본 논문은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생애의 마지막 해인 1828년에 작곡되어진 “백조의 노래 (Schwanengesang)D.957”에 대한 연구이다. 이 가곡집은 다른 연가곡과는 다르게 슈베르트가 죽고 난 후 출판자에 의해 14곡이 묶여 출판된 것이다. 서로 다른 3명의 시인의 시에 붙인 곡들이며 가곡집의 제목은 백조가 죽기직전에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죽는다는 설에 의해 붙여진 것이다.

슈베르트는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이다. 그는 31년의 짧은 생애 동안 그는 교향곡, 실내악곡, 피아노곡,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남겼고 가곡 또한 600여곡을 작곡했다. 유절가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당시에 슈베르트는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형식으로 시의 정서를 표현하였다. 그의 가곡은 시에 대한 해석을 성악 선율에만 두지 않고 거기에다 표현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반주부분에 화성적 색채와 리듬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이렇게 선율과 반주의 긴밀한 상호 관계를 만들어 가곡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로 만들었다. 또 뮐러(Wilhelm Müller 1794-1827)의 시에 곡을 붙인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Die schöneMüllerin)”와 “겨울나그네 (Winterreise)”가곡집을 통해 연가곡이라는 큰 틀을 만들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슈베르트의 생애와 가곡의 특징 그리고 백조의 노래 가곡을 분석하면서 시에 대한 해석이 음악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아보았다. 또 리듬, 박자, 조성, 빠르기를 살펴보고 선율과 반주의 긴밀한 상호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마지막 가곡의 작곡기법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연구하였다.

#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프란츠 슈베르트의 생애 .....	3
2. 예술 가곡의 기원 .....	8
3. 슈베르트 가곡의 특징 .....	10
4. 백조의 노래 .....	15
1) Libesbotschaft .....	18
2) Kriegers Ahnung .....	23
3) Frühlingssehnsucht .....	28
4) Ständchen .....	33
5) Aufenthalt .....	37
6) In der Ferne .....	42
7) Abschied .....	47
8) Der Atlas .....	52
9) Ihr Bild .....	56
10) Das Fichermädchen .....	59
11) Die Stadt .....	63
12) Am Meer .....	67
13) Der Doppelgänger .....	71
14) Die Taubenpost .....	75

Ⅲ. 결 론 ..... 79

참 고 문 헌

ABSTRACT

## I. 서론

19세기 유럽 사회는 절대 왕권이 무너지고, 봉건주의가 쇠퇴하면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정치, 경제, 사회에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이성을 강조하던 계몽사상, 합리주의 그리고 물질주의보다는 근본으로 돌아가려 성향으로 자연에 대한 동경, 자신의 개성과 감정표현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성격인데 이 영향으로 내면세계의 표현, 환상,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문학이 발전하여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를 포함한 뮐러(Wilhelm Müller 1794-1827), 하이네(Heine Heinrich 1797-1856), 피리케(Eduard Friedrich Mörike 1804-1875), 아이헨도르프(Joesph von Eichendorff 1788-1847), 쉴러(Friedrich von Schiller 1797-1805)등의 낭만주의 시인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서정적인 시문학의 발달은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 문학과 음악의 조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런 흐름에 낭만주의시대 작곡가인 슈베르트 (Franz Peter Schubert 1797~1828)는 뛰어난 감수성으로 시와 음악의 조화에 큰 공헌을 하였다. 단순한 반주형태에 가사를 반복하던 유절형식의 가곡에서 선율과 반주에 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으로 시와 음악의 사이를 보다 긴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가곡의 위치를 예술가곡으로 끌어올렸다. 이런 작곡 기법은 슈베르트이후의 작곡가들이 가곡을 작곡하는데 표준으로 삼았다.<sup>1)</sup>

본 논문에서는 슈베르트의 “백조의 노래(Schwanengesang) D.957” 를 연구하려 한다. 이 가곡집은 그가 사망한 후 6개월 뒤에 빈의 악보 출판업자 토비아스 하슬링거(Tobias Haslinger, 1787~1842)에 의해 마지막 해에 작

---

1) Grout, Donald Jay and Claude V. palisca and J. Peter Burkholder. **A History of Western Music**, 개정 7판. 민은기 오지희 이희경 전정임 정경영 차지원역. 서울: 이앤비플러스, 2007 p63

곡되어진 14곡을 묶어 출판되었다. 이 가곡집을 연주하는데 있어서 슈베르트가 시를 어떻게 해석하여 음악으로 표현하였는지, 선율과 반주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슈베르트의 생애와 예술가곡의 기원과 시대적 배경을 연구하여 그의 가곡의 특징을 알아보고 가곡의 분석을 통해 가사내용의 특징에 따른 그의 작곡 기법을 알아보고 반주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 II. 본론

### 1. 슈베르트의 생애

프란츠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는 35곡의 실내악곡, 6곡의 미사곡, 17곡의 오페라풍의 작품집, 9곡의 교향곡과 두 손과 네 손을 위한 소품곡 그리고 600여곡의 가곡을 작곡하였다. 많은 작품가운데 가곡을 발전시켜 예술가곡의 창시자<sup>2)</sup>로 불려지고 있으며 가곡의 위치를 음악사에서 중요한 장르로 끌어올린 공헌을 하였다.

그는 1797년 1월 31일 오스트리아(Austria)의 빈(Wien)의 리히텐달(Lichtental)에서 태어났다. 음악을 좋아하던 아버지의 권유로 10살 때부터 리히텐달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였던 미카엘 홀쩌(Michael Holzer)에게 바이올린 피아노 성악 오르간을 배웠다.

1808년 왕실예배당의 소년가수 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신학교(Staatkonvikt)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반교육과 음악교육을 받았다. 재학 중에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며 서곡과 교향곡을 공부하였다. 특히 그 당시 빈의 궁정악장으로 있었던 살리에리(Antonio Salieri 1750-1825)에게 작곡을 배웠다.

1811년은 슈베르트가 본격적으로 가곡을 작곡하기 시작한 해이다. 미완성곡 이기는 하지만 징슈필 “모범적 기사(Der Spiegelritter) D.11”가 12월부터 작곡되기 시작하였다.

1813년 말 국립신학교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훈련에 참여한 후 1814년 가을부터 아버지의 학교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 해에 시인이자 화가이자 법조인이었으며 작곡가였던 호프만이 “가곡”이라는 모음주제 아래 서평을 남겼는데 “작곡가라 함은 곡을 쓸 때 시인의 의도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순간들

---

2) Marcel Schneider, **F. Schubert**, 김방현 역, 삼호 출판사 p.117

을 마치 환하게 불타오르는 거울을 보는 듯이 엮어내어 멜로디를 탄생시켜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멜로디의 각 음표는 시에서 표현되고 있는 모든 감동의 상징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작곡가는 시에 적합한 의미만 쫓아서는 안 되며 작곡가가 스스로 시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슈베르트의 새로운 가곡을 하나하나 접할 때마다 그가 그 이전에 작곡했던 대부분의 작품들과는 크게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슈베르트의 음악이 더 이상 가사를 억지로 쫓아가거나 가사를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그의 가곡은 가사와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 있으며 하나의 뿌리로 공고히 묶여 있다.”<sup>3)</sup> 라고 말하였다.

1814년 10월에는 '물레 감는 그레첸(Gretchen am Spinnrade)'을 작곡하였다. 이 곡은 슈베르트가 괴테의 '파우스트(Faust)'를 읽고 작곡한 것으로 가사를 표현하는 그의 천부적인 재능이 발견된 곡이라 할 수 있는 대표곡이다. 물레로 실을 잣는 모습이나 그레첸의 마음 같은 이미지를 회화적으로 반주에 묘사한 곡이다. 슈베르트가 이곡을 부르는 가수에게 그레첸이 파우스트를 사랑하게 되므로 잃어버린 평온의 감정을 혼란스럽고 흥분된 감정을 가지고 부르도록 하였다.<sup>4)</sup>고 한다.

1815년은 145곡이라는 가곡을 작곡한 '다작의 해(Liederjahre)'인데 대표곡으로 '마왕(Erlkönig)', '들장미(Heidenröslein)', '연인 곁에서(nähe des geliebten)', '끊임없는 사랑(Rastlose Liebe)' 등이 있다. 특히 마왕은 피아노 반주가 단순히 성악의 부수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당시의 통념을 깨고, 가곡을 성악과 피아노의 2중주 차원으로 승화시킨 곡이라는 점에서 이 곡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훗날 리스트가 편곡하고 연주해서 더욱 유명해진 이 곡은 피아니스트들에게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게 하는 어려운 곡으로도 유명하다. 또 이 해는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오페라들도 많이 작곡하였는데,

---

3) Ditrech Fischer-Dieskau, **Frans Schubert und seine Lieder** ,insel taschenbuch, 1999 p.12

4) Gorrell, Lorraine ,**The Nineteenth-Century Germann Lied** (19세기 독일 가곡), 심송학 역,서울 ; 음악 춘추사 1998 p.138

5~12월에 ‘4년간의 보초병 근무(Der vierjährige Posten)’ ‘페르난도(Fernando)’ ‘빌라 벨라의 클라우디네(Claudine von Villa Bella)’ ‘살라망카의 친구들(Die Freunde von Salamanka)’ 등의 오페라를 발표했다.

1816년은 슈베르트가 친구 쇼버(Franz von Schober 1796-1882) 의집에서 머무르며 작곡에 전념한 해이기도 하다. 쇼버는 슈파운(Josef von Spaun 1788-1865)의 소개로 만났으며 그의 시 ‘음악에 부쳐(An die Musik)’에 곡을 붙였다. 또한 슈파운의 소개로 많은 지인들을 알게 되었고 그 중 배우이며 성악가였던 포글(Johann Michael 1768-1840)을 1817년 알게 되었다. 그는 슈베르트를 세상에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한 인물로 자신의 연주회에서 이 무명작가의 곡을 연주하여 슈베르트의 가곡들을 오스트리아 전역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sup>5)</sup> 이 해의 대표적인 가곡으로는 ‘죽음과 소녀(Der Tod und das Mädchen)’, ‘송어(Die Forelle)’등을 들 수 있다.

1818년은 슈베르트의 재능을 귀하게 여겨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편이 닿는 데로 그를 돌봐주었던 작곡가 안제름 휘텐브레너의 동생인 하인리히를 만났으며 마이어 호퍼의 집에서 생활하며 오페레타 ‘쌍둥이형제(Die Zwillingsbruder)’를 쓰기 시작했다.

1820년 6월에 ‘쌍둥이 형제’가 빈에서 공연되었다. 포글이 쌍둥이 형제 역을 동시에 맡은 이 공연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이어서 연극 ‘마술 하프(Die Zauberharfe)’의 부수음악이 같은 해 8월에 공연되었고, 여기에 포함된 ‘로자문데(Rosamunde)’ 서곡은 친근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는 이제 친구와 후원자에 의한 제한된 영역을 벗어나 보다 넓은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존라이트너 가족이 그의 음악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존라이트너의 아들인 레오폴트는 슈베르트의 절친한 친구이자 후원자가 되었다. 이 때 시작된 ‘슈베르티아데(Schubertiade)’를 통해 슈베르트는 자신의 가곡들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

5) 이덕희, **음악가와 친구들** 가람기획 2002 p.77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처음 이 모임이 시작되었을 때는 슈베르트의 재능을 사랑하므로 묶인 친구들의 모임이었는데 점점 빈의 젊은 인재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슈베르트가 계속 작곡에만 몰두 할 수 있는 후원자를 만날 수 있었고 세상에 자신의 작품을 알릴 수 있었다. 1820년대 말에 나온 그 밖의 작품들로는 시편 23절의 가사를 가지고 만든 여성 합창을 위한 모테트와 그해 12월에 작곡을 시작한 괴테의 ‘물 위의 정령의 노래 (Gesang der Geister über den Wassern) D. 714’ 에 붙인 합창곡이 있다. 이 곡은 더블베이스 반주에 의한 남성 8중주곡으로 1821년 2월에 완성되었다. 1821년 초에 몇몇 친구들이 그의 가곡 ‘마왕’ 출판을 위한 후원운동을 벌였고 반응은 상당히 좋아 이 곡 외에 ‘물레 감는 그레첸’도 출판할 수 있었고 18개월 후에는 작품 12번까지 출판하였다.

1822년 슈베르트는 매독의 초기 증상으로 고통 받았던 해이다. 이 병은 그의 죽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때 그는 ‘미완성 교향곡’과 피아노곡인 ‘방랑자 환상곡’의 작곡에 심혈을 쏟고 있었다.

1823년에 뮐러의 시에 곡을 붙인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Die Schöne Müllerin)’이란 연가곡이 작곡되어 그 다음해에 출판되었다. 슈베르트는 극음악을 쓰길 바라며 오페라 ‘피에라브라스 (Fierabras)’를 작곡하였지만 대중의 호응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오페라는 계속 실패하였으나 1825년 2개의 피아노소나타 A장조와 D장조 곡은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어 책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1826년 2년 전에 쓰기시작 했던 현악 4중주곡 ‘죽음과 소녀(Der Tod und das Mädchen)’을 완성하였다. 이 곡은 자신의 가곡인 ‘죽음과 소녀’ 반주부분을 2악장에 도입해 그 음울한 멜로디를 바탕으로 변주하여 곡이 쓰여 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827년 슈베르트는 오스트리아황제의 궁정 예배당의 부 악장 자리가 비었음을 알게 되어 그 자리를 얻으려고 청원서를 보냈으나 실패하였다. 이러 행동

을 봤을 때 그는 보헤미안적인 삶<sup>6)</sup>에서 벗어 나 안정되길 바란 것으로 보인다. 이 해에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이 사망한 해이기도 하다. 그가 존경하던 베토벤의 죽음은 그에게 충격이었는지 이 해 2월에 작곡을 시작하여 10월에 마무리한 곡 뮐러의 시에다 곡을 붙인 ‘겨울 나그네(Winterreise)’를 보면 어둡고, 슬프며, 고독과 곤궁, 죽음에의 예감을 그려내고 있다. 이곡을 처음 불렀을 때, 이 곡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지 못했다.<sup>7)</sup>고 한다.

1828년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으나 슈베르트의 창작열은 식을 줄 몰랐다. 이때의 작품은 대체로 가곡이 많다. 이 해에 슈베르트의 작품만으로 음악회를 열기 바라던 친구들의 도움으로 3월26일에는 그의 작품만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음악회 <Franz Schubert's Invitation Concert>가 열렸다. 이 연주회에서 바리톤 가수 포글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중 다섯 곡을 슈베르트 자신이 반주를 하였다고 한다. 이 해에 작곡되어진 가곡을 출판업자가 14곡을 묶어 출판한 ‘백조의 노래(Schwanengesang D.957)’가곡집은 8월에 작곡된 뢰스탑의 시로 작곡되어진 7곡과 하이네의 시로 작곡된 6곡, 그리고 마지막곡인 ‘비둘기 우편(Die Taubenpost D.965a)’은 자이들의 시로 10월에 구성되어있다. 11월19일 그는 발진티푸스성의 장티푸스로 인해 31년의 생을 마감하였다.

---

6) 보헤미안적인 삶이란 사회의 규범이나 습속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곧 집시(gypsy)의 자유와 낭만, 박애로 표현되는 성향을 말한다.

7) Marcel Schneider ,**F. Schubert** 김방현 역 삼호 출판사 p.103

## 2. 예술 가곡의 기원

낭만주의는 19세기에 계몽사상의 반발로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과 개성을 강조하며 시작되었다. 자유와 개성의 표현과 이상세계를 갈망하는 정신이 문학과 결합하여 발달하였는데 대표적인 문학가로 괴테(Goethe), 쉴러(Schiller), 하이네(Heine)등이 있다. 이런 문학의 발달이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작곡가들도 시와 음악을 결합시키는 시도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예술가곡이 탄생하였다.

가곡의 기원을 살펴보면 단선율로 부르는 무반주 종교음악인 그레고리안 성가(Gregorian Chant)를 들 수 있고 중세에는 소박하고 유머스러운 시에 단순하며 자유로운 리듬을 가지고 노래하던 음유시인들인 민네징거(Minnesinger)와 마이스터징거(Meistersinger)가 있고, 르네상스시대의 다성부 가곡(Polyphonic Lied) 그리고 바로크시대에 통주저음이 딸린 노래가 있었으나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 등에 포함되어진 아리아나 레시타티보가 되어 순수한 의미의 독립된 가곡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 18세기에 독일에서는 하인리히 알베르트(Heinrich Albert), 안드레아스 하머슈미츠(Andreas Hammerchmidt)와 같은 작곡가들이 민족적 성격이 강한 곡들을 작곡하여 많이 보급이 되긴 하였지만 기악곡이나 춤곡에서 선율을 차용해왔기 때문에 가곡의 독창성이 떨어지고 가곡의 발전을 가져오진 못 하였다.<sup>8)</sup> 또 문학가들도 자신의 작품이 노래에 사용되어지는 것에 호의적이지 않아 시를 우선으로 하는 가곡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시에 맞는 선율과 시의 의미를 더 표현해 줄 수 있는 화성적 색채를 사용하는 일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가곡들이 많이 작곡되었다. 슈츠(J. A. P .Schulz)는 훌륭한 시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겨 그에 따라 괴테나 쉴러 등의 시를 사용하여 작곡을 하였지만 민요적인 원칙에 집착이 많아 민요적인 곡이 많다. 그는 모든 가곡들이 예술

8) 홍세원, **슈베르트 예술가곡의 역사적 고찰**, 서울: 연세 교육 과학학술지, 1992 p.121

적인 것 보다는 대중적이길 원했고 음악보다 시의 전달에 더 관심을 부여하여 좋은 시를 알리는데 음악을 사용하였다. 라이하르트(J. F. Reichardt)도 슐츠의 의견에 동조한 인물이며, 첼터(K .F. Zelter)는 피테의 친구로 그의 시에 곡을 많이 썼다. 첼터는 반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 첫 가곡집 「노래를 위한 피아노에 붙인 가곡들, Lieder am Klavier zu Singen 」이 있다. 쾰슈텍(J.R.Zumsteeg)은 발라드형식에 의한 가곡을 많이 썼다. 그의 곡은 낭송적이면서 드라마틱한 느낌의 서주부로 시작하여 테마의 별다른 반복이나 순환 없이 점진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전하나 독백을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성악가의 노래 소리는 반주보다 우위에 있도록 작곡하였다. 이를 위해서 유절 형식보다는 통절 형식을 발전시켜 곡을 썼는데 슈베르트도 이 영향을 받아 그의 초기 가곡 습작에 쾰슈텍의 발라드 노래를 모방했다. 모차르트(Mozart)는 가곡에는 큰 관심이 없어서 40여곡밖에는 남겨진 곡이 없다. 그러나 “제비꽃(Das Veilchen)”으로 예술가곡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베토벤(Beethoven)도 가곡을 작곡하긴 했으나 시대의 흐름이 가곡보다는 칸타타나 마드리갈과 같은 규모 있는 성악곡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큰 발전이 없었다. 그러나 이렇듯 오래되고 풍성한 음악적 전통가곡의 흐름은 슈베르트가 가곡을 예술가곡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예술가곡이란 용어는 독일 음악학자 칼 코스말리(Karl Kossmaly 1812~1893)에 의 1841년에 처음 사용된 말로 슈베르트 사후에 그의 리트를 해석하는 가운데 만들어졌다.<sup>9)</sup>

---

9) 김용환, **서양음악사 100장면(2)**, 서울: 가람기획, 2002, p.126

### 3. 슈베르트가곡의 특징

슈베르트는 마음이 맞는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아름답고 편안한 분위기와 폭넓은 자유로움이 수반된 인생의 기쁨 속에서 강해진 인물이다.<sup>10)</sup> 문학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그는 정기적으로 독서모임에 참석하였고 그 곳에서 쉴러, 괴테와 같은 대가들의 작품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문학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음악의 열정을 표현 할 수 있었다. 당시는 시에 대한 열정으로 들끓던 시대였으며 무명의 작가, 드라마 작가, 비평가, 철학자, 교수 등이 너나 할 것 없이 시를 썼다. 이러한 영향으로 슈베르트는 항상 새롭고 다양한 시를 접하여 그것을 가사로 선택했다. 이렇게 곡을 붙인 슈베르트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sup>11)</sup> 그러나 다양한 시에 곡을 썼던 것 때문에 그의 상상력은 커지게 되었다. 그는 시를 읽으며 머릿속에 확실한 구상이 잡히면 여러 개의 곡을 썼다. 예를 들어 쉴러의 시에 1811년 두 곡, 1813년에 7 곡, 1815년에도 7곡을 쓰고 마티손의 시에는 1814년 13개, 1815년 괴르너의 시에 14개, 훔터의 10개 작품, 코제가르텐의 12개, 클롭슈톡의 8개 작품 등에 이러한 시도를 하였다.<sup>12)</sup> 당시의 대문호였던 괴테는 슈베르트의 작품 활동 시기 전체를 통틀어 절대적으로 끼친 영향력이 매우 컸다. 괴테의 서정시는 인생을 통틀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슈베르트는 그의 시를 가지고 많은 곡을 작곡하였다. 대표곡으로 ‘마왕(Erlkönig) D.328’, ‘물레 감는 그레첸(Gretchen am Spinnrade) D.118’ 등의 곡이 있다. 그러나 괴테는 슈베르트의 곡에 대해서 냉담했다고 한다.<sup>13)</sup> 괴테는 유절가곡을 지지한 사람으로 새로운 변화가 자꾸 일어나 유절가곡의 존립에 매우 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sup>1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베르트는 그

10) 이덕희, **음악가와 친구들**, 서울: 가람기획, 2002, p.65

11) Ditrech Fischer-Dieskau, **Frans Schubert und seine Lieder**, insel taschenbuch, 1999 p.19

12) Ibid. p.21

13) Marcel Schneider, **F. Schubert**, 김방현 역 삼호 출판사, 1991, p.124

14) Ditrech Fischer-Dieskau Ibid. p.12

에 대한 존경심을 포기하지 않았고 ‘방랑자의 밤 노래(Wanderers Nachtlied) D.224’와 같은 음악으로 만들기 어려운 짧은 쇠를 가지고도 곡을 붙이는 시도를 하였다.<sup>15)</sup> 또 쉴러의 작품으로 ‘소녀의 슬픔(Des Mädchens Klage) D.6’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심장은 죽었고 세상은 텅 빈 채 다시는 소망을 품지 않는다." 슈베르트는 쉴러의 시처럼 정신적인 면에 치중된 서정시를 음악에 적용한다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시에 곡을 붙였는데, 그 중에 몇 개의 작품에는 곡을 중복해서 붙이기도 했다. 이렇게 괴테 다음으로 쉴러와 마이어호퍼가 각각 70 편과 47편으로 뒤를 따르며, 이들 세 명은 슈베르트가 가장 많이 작곡한 작품들의 작가들이다. 네 번째는 빌헬름 뮐러로 마흔다섯 편이 작곡되었는데 한 작품을 빼고 나머지는 연가곡(모음곡) 형식으로 창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는 유명한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Die Schöne Müllerin) D.795"와 "겨울 나그네(Die Winterreise) D.911"도 포함되어 있다.

<표1> 슈베르트 리트의 연대별 가곡 형식  
(Peters와 Breitkopf판 가곡집 범위임)

	유절 형식	변형 유절 형식	통절 형식
1811	0	0	4
1812	0	0	1
1813	1	0	6
1814	11	7	10
1815	84	8	63
1816	63	3	30
1817	22	1	22
1818	5	1	4
1819	8	2	8
1820	7	1	15

15) Marcel Schneider Ibid. p.125

1821	2	0	8
1822	1	4	17
1823	10	6	17
1824	0	2	6
1825	2	4	0
1826	9	8	11
1827	7	9	17
1828	2	6	10
계	234	62	239

위의 표에서 보면 슈베르트 가곡초기에는 유절가곡 형식을, 후기에는 통절가곡 형식을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유절가곡형식이란 같은 멜로디에 시의 각 절이 되풀이 되는 형식으로 대표곡으로는 ‘들장미(Heidenröslein) D.257’, ‘실비아에게(An Silvia) D.891’ 등이 있고, 통절 가곡 형식은 시의 느낌이나 분위기에 따라 음악을 다르게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곡으로는 ‘마왕(Erlkönig) D.328’, ‘사랑의 전령(Liebesbotschaft)’ 같은 곡이 있다. 간혹 곡의 일부만을 변형시켜 사용한 변형된 유절 가곡이 있는데, 대표곡으로는 ‘송어(Die Forelle) D.550’, ‘그대는 나의 안식(Du bist die Ruh)D.776’, ‘달에 붙임(An den Mond) D.193’ 등이 있다. 또한 음악의 성격에 따라 민요적인 요소를 넣은 가곡, 낭송조의 선율을 사용한 가곡, 극적 장면을 보는듯한 가곡, 화성적 색채가 예리하며 서정적으로 흐르는 가곡으로 나뉘볼 수 있다. 민요적인 요소를 넣은 대표적 가곡으로는 ‘들장미(Heidenröslein) D.257’, ‘보리수(Der lindenbaum)’, ‘어디로(Wohin)’, ‘송어(Die Forelle) D.550’ 가 있고, 낭송조의 선율을 사용한 곡의 대표곡으로는 ‘바닷가에서(Am Meer)’, ‘방랑자(Der Wanderer)’, ‘그대는 나의 안식(Du bist die Ruh)’ 이 있고, 극적 장면을 보는듯한 가곡의 대표곡으로 ‘거주지(Aufenthalt) D.957’, ‘아틀라스(Der Atlas) D.957’, ‘젊은 수녀(Die junge Nonne) D.828’, ‘마부 크로노스에게(An schwager Kronos) D.369’, 그리고

화성적 색채가 예리하며 서정적으로 흐르는 곡으로 ‘타르타루스의 무리 (Gruppe aus dem Tartarus) D.583’, ‘향수(Das Heimweh) D.851’ 등이 있다.

슈베르트는 연가곡을 작곡함으로써 가곡의 형식을 보다 큰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다. 슈베르트 이전에도 베토벤이 작곡한 “멀리 있는 연인에게(An die ferne Geliebte) Op.98” 란 연가곡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예술 연가곡으로 인정받는 받은 작품이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Die Schöne Müllerin) D.795”와 “겨울 나그네(Die Winterreise) D.911”이다.

슈베르트는 시에서 느끼는 감정을 전음계적인 음향이 지배적인 가운데 반음계적 색채를 넣어나 증6화음이나 감7화음을 사용하므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었고 대표곡으로 “바닷가에서(Am Meer)”가 있다. 곡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장조에서 단조로, 장조에서 단조로 조바꿈을 사용하였으며, 3도나 네아 폴리탄6화음(Neapolitan 6th)의 사용을 통해 곡의 서정적 흐름을 유도하였다.<sup>16)</sup> 이런 성향이 겨울 나그네와 백조의 노래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슈베르트 가곡의 특징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선율과 반주의 조화이다. 시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율과 반주의 상호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었는데, 성악선율로만은 부족한 시의 정서를 반주가 표현하도록 하여 노래선율을 도와주는 역할 뿐 아니라 선율을 도와서 음악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반주음형이 가사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곡으로 ‘사랑의 전령(Liebesbotschaft)’이나 ‘물위에서 노래한다(Auf dem wasser zu singen)’를 들 수 있으며 최초로 작곡된 가곡인 ‘물레 감는 그레첸 (Gretchen am Spinnrade)’은 반주 음형이 물레가 돌고 있는 것을 상상하게끔 해주며 그레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향한 마음을 극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마왕(Erlkönig)’에서는 옥타브의 셋 잇단음으로 아이의 긴장감과 말발굽 소리를 표현해주고 있고 또 다른 반주 양식으로 ‘그림자 (Der Doppelgänger)’에서는

16) 양일용, **에피소드로 보는 서양 음악사**, 서울: 태림출판사, 2006. p.165

낭송조의 노래 성부아래에 저음역의 길고 어두운 화음만으로 불길한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슈베르트는 시에서 받은 영감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가곡이란 장르를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로 끌어올리는 공헌을 하였다. 슈베르트의 가곡은 이후의 작곡가들에게 가곡 작곡의 기준점이 되어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가곡을 발전시켜나갔다.

#### 4. 백조의 노래 (Schwanengesang)

<표2> 백조의 노래 악곡 형식

곡 목	악곡 형식	조성	박자	빠르기	시인
1. Libesbotschaft	통절2부	G	2/4	Lento (Ziemlich langsam)	L.Rellstab
2. Kriegers Ahnung	통절2부	c	3/4	Lento (Nicht zu langsam)	L.Rellstab
3. Frühlingssehnsucht	유절3부	B $\flat$	2/4	Vivace (Geschwind)	L.Rellstab
4. Ständchen	통절2부	d	3/4	Moderato (Mäßig)	L.Rellstab
5. Aufenthalt	통절제1부+ 제2부+ coda	e	2/4	Allegro non troppo (Nicht zu geschwind, doch kräftig)	L.Rellstab
6. In der Ferne	통절2부	b	3/4	Lento assai (Ziemlich langsam)	L.Rellstab
7. Abschied	통절+ 유절3부	E $\flat$	4/4	Allegro Moderato (Mäßig geschwind)	L.Rellstab
8. Der Atlas	통절3부	g	2/4	poco Allegro (Etwas geschwind )	H. Heine
9. Ihr Bild	통절3부	b $\flat$	2/2	Lento (Langsam)	H. Heine
10. Das Fischermädchen	약간 변화된 유절2부	A $\flat$	6/8	Allegretto poco animato (Etwas geschwind)	H. Heine
11. Die Stadt	통절2부	c	3/4	Allegro (Mäßig geschwind)	H. Heine
12. Am Meer	유절2부	C	2/2	Molto Adagio (Sehr langsam)	H. Heine
13. Der Doppelgänger	통절3부	b	2/2	Molto Adagio (Sehr langsam)	H. Heine
14. Die Taubenpost	유절+ 통절3 부	G	2/2	Lento assai (Ziemlich langsam)	J.G. Seidl

이 가곡집은 앞서 말했듯이 두 개의 연가곡집과는 다르게 슈베르트가 죽고 난 후 6개월 뒤에 빈의 악보 출판업자 하슬링거(Tobias Haslinger, 1787~1842)에 의해 출판되었다.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던 해 8월에 작곡된 13곡과 10월에 작곡되어 마지막 곡이라고 하는 “Die Taubenpost(우편비둘기)”을 포함하여 모두 14곡이다. 따라서 이 가곡집은 연가곡집이 아니고 제목을 가지고 있는 가곡 모음집이라 해야 한다.<sup>17)</sup> 이 가곡집에 사용된 시는 렐슈타프(L. Rellstab)의 시 7곡, 하이네 (H. Heine)의 시 6곡, 슈베르트의 가곡 중 마지막 곡이라고 하는 자이들(J. G. Seidl)의 시 1곡을 묶어 14곡이 된다.

**렐슈타프(Ludwig Rellstab 1799-1860)**는 베를린에서 태어난 시인이자 음악 평론가이다. 그는 작곡가이자 악보 출판업을 하는 아버지를 두었고 슈베르트의 ‘백조의 노래’ 가곡집에 7곡이 들어있으며 오페라 대본<디도 Dido>를 써서 베버 (C. M. V. Weber 1786-1826, 독일)에게 자극을 주기도 했다. 그는 <1812>라는 소설을 썼는데, 여기에 나폴레옹에 대한 숭배와 폴란드에 대한 그의 생각을 나타내었다. 렐슈타프는 유명한 시인은 아니며 슈베르트에 의해 그 이름이 후세에 남겨졌다.

**하이네 (Heinrich Heine, 1797~1856)**는 가난한 유대인의 아들로 뒤셀도르프에서 태어난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전통을 잇는 서정시인인 동시에 반(反)전통적·개혁적인 저널리스트였다. 부호인 숙부의 도움을 받아 본대학교·와 괴팅겐대학교, 베를린대학교 등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사촌 누이동생 자매와의 실연을 겪었으며, 이들 체험에서 처녀시집 <시집 Gedichte 1822>, 희곡 <라트리프> <아르만조르>를 썼다. 1825년에 법학박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적당한 취직자리가 없어 영국·이탈리아를 여행하며, 풍자적인 기행문집<여행 그림 Reisebilder> 시집<노래책 Buch der Lieder>(1827) 등을 발표하여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1830년 프랑스의 7월 혁명 이후

17) 강만희, **간추린 19C 낭만 음악사**, 대전: 예광, 2005.

프랑스로 망명하였으며 이곳에서 독일 문학을 알리는데 힘썼으며 G. 마이에르베르, V. 위고, A. 뒤마, J. L.벨랑제, G. 상드, H. 발자크 등과 교류하며, 독일과 프랑스의 문화적 교류를 위한 교량역할을 한 그는 1856년 척추결핵으로 사망하였다. 하이네는 독일 시인 중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작품이 작곡되어 오늘날에도 널리 애창되고 있으며 독일 현대시의 창시자로 불리고 있다.

**자이들(J. G. Seidl 1804~1875)**은 변호사의 아들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자신도 법률을 공부했으며 고고학자, 시인, 소설가와 극작가였다. 1829년 그는 Cilly의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있었고 1840년에는 박물관의 감독과 책 검열관으로 재직했으며, 1856년에는 왕실 회계 장관, 1871년에는 자문위원으로 각각 일했다. 하이든이 곡을 붙인 <신이여 돌보소서, 지켜주소서 Gott erhalte, Gott beschütze> 가 유명하며 <연감 Aurora><제비꽃 Das Veilchen><이두나 Iduna><훌륭한 가문의 친구 Der Freund Des Schönen Geschlechts>의 출판업자이기도 하다.

## 제 1 곡 Libesbotschaft 사랑의 전령

### 1) 가사 내용

#### Libesbotschaft

Rauschendes Bächlein, so silbern und hell,  
Eilst zur Gelibten so munter und schnell?  
Ach, trautes Bächlein, mein Bote sei du;  
Bringe die Grüße des Fernen ihr zu.

All ihre Blumen im Garten gepflegt,  
Die sie so lieblich an Busen trägt,  
Und ihre Rosen in purpurner Glut,  
Bächlein, erquicke mit kühlender Flut.

Wenn sie am Ufer, in Träume versenkt,  
Meiner gedenkend, das Köpfchen hängt,  
Tröste die süße mit freundlichem Blick,  
Denn der Geliebte kehrt bald zurück.

Neigt sich die Sonne mit rötlichem Schein,  
Wiege das Liebchen in Schlummer ein.  
Rauche sie murmelnd in süße Ruh,  
Flüstre ihr Träume der Liebe zu.

#### 사랑의 전령

은빛으로 맑게 흐르는 냇물아,  
힘차고 빠르게 내 님께로 달려가나?  
아, 정겨운 냇물아. 너 나의 전령되어  
멀리 있다는 안부를 그녀에게 전해다오

그녀가 사랑스레 가슴에 지니는,  
정원에서 자라는 모든 꽃들과  
자춧빛으로 타오르는 그녀의 장미를  
냇물아, 시원한 물줄기로 식혀다오

그녀가 물가에서 꿈에 잠겨  
내 생각하며 고개 떨구거든  
다정한 눈길로 귀여운 그녀를 위로해 다오.  
사랑하는 사람이 곧 돌아온다고.

태양이 붉은 빛으로 기울 때면  
사랑스런 그녀를 편히 잠재워다오.  
감미로운 휴식으로 그녀에게 노래하며,  
사랑의 꿈을 속삭여다오.

번역 피종호<sup>18)</sup>

## 2) 형식 분석

이 곡은 2/4, G장조, Lento (Ziemlich langsam) 빠르기를 가지고 있으며 2부 통절가곡 형식이다. 이 노래는 생기 있고 사랑스러운 시냇물의 흐름을 32분음표의 음형에 의하여 표현하며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시냇물에게 표현한 곡이다. 짧은 시행들을 뛰어난 감수성으로 표현하였으며 악구의 길이들이 다르게 되어있다.

곡 전체의 형식과 중심 조성은 다음과 같다.

형식	제 1 부					제 2 부			
	전주	A	간주	B	간주	C	간주	A	후주
마디	1-5	6-16	17	18-29	30-31	32-48	49-51	52-68	69-75
중심조성	G	G, e	C	C, d	C	C, B	G	G, e	G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32분 음표의 음형은 급하지 않으면서 사랑스럽고 온화하게 연주하여야 된다. 피아노 반주에서 보면 오른손의 32분음표 음형아래에 왼손의 성부를 보면 지속음(Pedal point)과 선율적인 반주 형태를 가진 것을 볼 수 있다. (악보1)

18) 피종호, 독일연가곡, 서울: 유로출판, 2007.

(악보 1) 1~5마디

*Ziemlich langsam.*

지속음 (pedal point)

시냇물이 조용히 흐르는 것을 묘사한 오른손의 반주를 고른 소리가 들리도록 표현하여 연주해야한다. 성악선율과 외손 베이스 선율의 서로 주고받는 선율을 성악가와 반주자가 잘 들어가며 주고받아야 한다. (악보2)

(악보 2) 6-11마디

*p*

Rau - schen-des Bäch - lein, so sil - bern und hell,

*pp*

*p*

eilst zur Ge - lieb - ten so mun - ter und schnell?

3개의 16분음표의 메조 스타카토(mezzo staccato)와 4분음표를 동음의 연타로 사용하여 사랑의 갈등, 긴장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다.(악보3)

(악보 3) 12-14마디

12

ach, trau-tes Bäch - lein, mein Bo - te sei du;

3절에서의 조바꿈은 나른한 오후에 어울리는 감정과 사랑하는 사람이 곧 돌아온다는 약속에 따라 음악이 a단조에서 B장조로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4)

(악보 4) 39-41마디

39

hängt, trö - ste die Sü - ße mit freund - li - chem Blick,  
다정한 눈길로 귀여운 그녀를 위로해 다오

*mf*

*cresc.*

e: I            V  
                  B: I

가장 고음인 f#음을 지닌 가사 Geliebte (연인)를 부를 때 포르테보다는 메조 피아노(mezzo piano)로 연주하여 감정의 절제를 표현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가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정을 더 애절하게 표현하여 이 곡의 맛을 살려준다. (악보5)

(악보5) 45-47마디

45

freund - li - chem Blick, — denn der Ge - lieb - te — kehrt bald zu -

후주는 8마디로 전주의 5마디의 동기가 확장된 형태로 되어 있고 왼손 반주부분도 5도의 음역에서 8도로 폭이 넓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악보6)

(악보 6) 69-75마디

69

*dimin.*

72

## 제 2 곡 **Kriegers Ahnung** 병사의 예감

### 1) 가사 내용

#### **Kriegers Ahnung**

In tiefer Ruh liegt um mich her  
Der Waffenbrüder Kreis;  
Mir ist das Herz so bang, so schwer.,  
Von Sehnsucht mir so heiß.

Wie hab ich oft so süß geträumt  
An ihrem Busen warm!  
Wie freundlich schien des Herdes Glut,  
Lag sie in meinem Arm.

Hier, wo der Flammen düstrer Schein  
Ach! nur auf Waffen spielt,  
Hier fühlt die Brust sich ganz allein,  
Der Wehmut Träne quillt.

Herz, daß der Trost dich nicht verläßt,  
Es ruft noch manche Schlacht.  
Bald ruh ich wohl und schlafe fest,  
Herzliebste - gute Nacht!

#### **병사의 예감**

내 곁에 있는 동지들  
깊은 안식 취하는데,  
내 마음은 두렵고 무거워지네  
그리움으로 뜨거워지네.

나 얼마나 자주 단꿈을 꾸었던가.  
그녀의 따듯한 가슴에서!  
화로의 불빛은 얼마나 다정했던가.  
그녀가 내 품에 안겼을 때.

여기에서 음산하게 타는 불길이  
아! 무기들에만 비칠 뿐.  
여기서 내 마음은 정말 외로워라.  
슬픔의 눈물만 샘솟는구나.

마음이여, 그래도 위안이 너를 버리지 않으리,  
아직 많은 전투에서 오라고 하네.  
곧 나도 쉬고 깊은 잠에 빠지리니,  
사랑하는 님이여 - 잘 자오!

## 2) 형식 분석

이 곡은 3/4박자, C 단조, Lento (Nicht zu langsam) 의 빠르기와 2부 통절 가곡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축소된 오페라 풍의 서창 형식이다. 전쟁터에 있는 한 병사의 연인을 향한 그리운 마음과 전쟁터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노래한 곡이다.

곡 전체의 형식과 조성은 다음과 같다.

형식	제 1 부			제 2 부								
	전주	A	B	간주	C	간주	D	간주	C'	간주	D	Coda
마디	1-28	29-42	43-60	61-62	63-70	71	72-87	88	89-97	98	99-111	112-122
중심 조성	cm, Eb	Ab, Gb	f#m, fm	cm	cm, am	am	d, Ab, F	fm	cm, dm	am	dm, Ab	cm

1-28마디에 이르는 전주는 세 프레이즈로 나눌 수 있는데, 1-8마디가 첫 부분이고, 9-25마디까지는 서창형식(recitative)의 선율이 나오며 나머지 3마디의 간주 부분으로 되어 서주를 마치는데 반주부분을 보면 전쟁의 두려움으로 인한 병사의 마음을 큰소리도 내지 못하고 불안한 심장의 고동소리 처럼 불안한 리듬을 반복하며 서창형식으로 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악보7)

(악보 7) 1-11마디

1

*Nicht zu langsam.*

6

*p*

In tie-fer Ruh liegt ummichher der

*p*

2연이 시작되는 29마디 부분은 사랑하는 여인의 품에서 꾸던 단꿈을 회상하는 분위기를 반주부의 A♭의 지속음위에 3연음의 흐름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악보8)

(악보 8) 29-31마디

29

*Etwas schneller.*

*p*

Wie hab ich oft so süß ge-träumt — an

*pp*

또한 화성적인 면에서도 변화화음을 통해 주위의 전우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건만 나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불안해하는 화자의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 14마디에서 증 6화음 German 6th<sup>19)</sup>를 사용하였다. (악보9)

(악보 9) 14마디

14

Waf-fen-brü-der Kreis; mir

Ger6th

또 다른 화성의 특색으로 이명동음전조(Enharmonic Modulation)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전환한 것이 보인다. (악보10)

(악보 10) 42-43마디

42

*p*

Hier,

*pp*

Gb:V f#:V

19) German 6th: 음계의 6음위에 반음 내려 구성(장3,완전5,증6도)

곡 중간에 6/8박자로 변하여 극적인 요소를 표현하였으며 마지막은 처음의 적막함으로 되돌아가고 16분음표의 분산화음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며 현실을 받아드리는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악보11)

(악보 11) 58-66마디

58 *Geschwind, unruhig.*

Trä - ne quillt.

63 *mp*

Herz! daß der Trost dich nicht ver - läßt, daß der Trost dich nicht ver -

*cresc.*

이 곡은 음역이 넓기 때문에 능숙한 바리톤이 필요한 곡이다. 음악의 표현이 극적으로 자주 바뀌어도 포르티시모(ff)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고 내면으로만 그 괴로움, 두려움, 공포를 표현하고 있는 곡이다. 이런 표현을 위해서 변박과 전조를 사용하여 심리적 묘사를 잘 표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들은 이 시의 배경이 전쟁터라는 것을 염두 해두고 소리의 색을 잘 찾아야 한다.

### 제 3 곡 Frühlingssehnsucht 봄의 동경

#### 1) 가사내용

##### Frühlingssehnsucht

Säuselnde Lüfte wehend so mild,  
Blumiger Dufte atmend erfüllt!  
Wie haucht ihr mich wonnig befrüßend an!  
Wie habt ihr dem pochenden Herzen getan?  
Es möchte euch folgen aufluftiger Bahn,  
Wohin? Wohin?

Bächlein, so munter rauschend zumal,  
Wollen hinunter silbern ins Tal.  
Die schwebende Welle, dort eilt sie dahin!  
Tief spiegeln sich Fluren und Himmel darin.  
Was ziehst du mich, sehrend verlangender Sinn,  
Hinab? Hinab?

Grübender sonne spielendes Gold,  
Hoffende Wonne bringest du hold,  
Wie labt mich dein selig begrüßendes Bild!  
Es lächelt am tiefblauen Himmel so mild  
Und hat mir das Auge mit Tränen gefüllt,  
Warum? Warum?

Grünend umkränzet Wälder und Höh.  
Schimmernd erglänzet Blütemschnee.  
So dränget sich alles zum bräulichen Licht;  
Es schwellen die keime, die knspe bricht;  
Sie haben gefunden, was ihnen gebricht:  
Und du? Und du?

##### 봄의 동경

살랑대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꽃향기를 내쉬며 사방에 퍼지네!  
너희는 환희의 숨결로 날 반기는구나!  
어떻게 내 마음을 이토록 고통치게 했는지?  
너희들 가볍게 가는 길 뒤따르고 싶구나.  
어디로? 어디로?

시냇물은 힘차게 활활거리며  
은빛 골짜기로 흘러가려 하네.  
일렁이는 물줄기, 그리고 달리고 있네!  
들판과 하늘을 깊이 비추면서.  
동경하며 갈구하는 마음아, 왜 나를 이끌어 가나,  
아래로? 아래로?

빛나는 황금빛으로 인사하는 태양이여,  
그대는 희망찬 환희를 전해주네.  
행복하게 반겨주는 모습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깊고 푸른 하늘에서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내 눈을 눈물로 채워주었네.  
어찌하여? 어찌하여?

숲과 언덕은 푸른 색 관을 둘러쓰고,  
눈처럼 덮인 꽃들이 은은히 빛나며.  
만물이 신부처럼 화사하게 밀려오는구나.  
싹들이 부풀고 꽃 봉우리가 터지네.  
그들은 드리어 바라던 것을 찾았는데.  
그대는? 그대는?

Rastloses Sehnen! Wünschendes Herz,  
 Immer nur Tränen, Klage und Schmerz?  
 Auch ich bin mir schwellende Triebe bewußt!  
 Wer stillt mir endlich die drängende List?  
 Nur du befreist den Lenz in der Brust,  
 Nur du! Nur du!

쉽 없는 그리움! 원하는 이 마음,  
 언제나 눈물과 탄식, 고통뿐인가?  
 부풀어 오르는 충동을 나 또한 느끼는데!  
 몰아치는 이 욕망 달래줄 이 누구일까?  
 그대만이 이 가슴속의 봄을 풀어줄 수 있네,  
 오직 그대! 오직 그대만이!

## 2) 형식 분석

이 곡은 2/4박자, B♭장조, Vivace (Geschwind) 빠르기를 가지도 있는 3부 형식으로 된 유절 형식의 노래이다. 사랑대는 바람에 타고 오는 봄의 꽃향기에 취해 사랑하는 여인을 동경하며 그리워하는 시인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곡 전체의 형식과 조성은 다음과 같다.

형식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후 주
	전 주	A	간 주	B	C	간 주	A	간 주	B	C	간 주	A'	간 주	B	C'	
마디	1-12	13-30	31	32-40	41-52	53-57	58-75	76	77-85	86-97	98-102	103-120	121	122-130	131-144	145-148
중심 조성	B♭	B♭	B♭	A♭	B♭, d, A♭	B♭	B♭	B♭	A♭	B♭, d, A♭	B♭	bb, D	D♭	B♭, A♭	B♭, d	B♭

이 곡은 큰 세도막 형식 1부(A+B+C), 2부(A+B+C), 3부(A'+B'+C') 을 가지고 있으며 봄을 동경하는 그 마음에 명량한 기분이 들도록 노래 성부는 단순하지만 3연음의 분산화음이 반주의 주를 이루어 경쾌함을 전해 주고 있으며 왼손의 성부를 보면 지속음(Pedal point)반음계적 선을 진행으로 상승

하는 봄의 기운을 전하고 있다. (악보12)

(악보 12) 1-18마디

*Geschwind.*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18 is written for piano in 2/4 time.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flat and E-flat). The score is divided into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measures 1-6) features a treble clef with eighth-note chords and a bass clef with eighth-note chords. Dynamics include *p* (piano) and *cresc.* (crescendo). The second system (measures 7-18) continues with similar rhythmic patterns and dynamics, including a *p* dynamic marking.

지속음안에서 반음계적 상행하는 선율

6

노래성부와 반주의 선율이 3:2의 비율로 단순한 선율에 변화를 주고 있다.

(악보 13)

(악보 13) 13-18마디

13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3-18 includes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vocal line is in a treble clef with lyrics in German. The piano accompaniment is in a bass clef.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The lyrics are: Säu-seln-de Lüf-te we-hend so mild, blu-mi-ger Lüf-te; Grü-Ben-der Son-ne spie-len-des Gold, hof-fen-de Won-ne.

Säu - seln - de Lüf - te we - hend so mild, blu - mi - ger Lüf - te  
 Grü - Ben - der Son - ne spie - len - des Gold, hof - fen - de Won - ne

Bb: I V I<sub>6</sub>

이 곡은 제 1부(1-52마디)와 2부(53-97마디)는 리듬과 선율이 똑같으며 3부(113-148마디)는 1부의 A부분의 같은 음을 장. 단조 관계 안에서만 변화가 나타난다. (악보13, 14 참고)

(악보 14) 103-109마디

103 *mp*  
 Rast - lo-ses Seh - nen! Wün - schendes Herz, im - mer nur Trä - nen, Kla - ge und  
 bb : I V I

이 곡의 41, 81, 131마디에 보면 늘림표 뒤에 반음계적 전조에 의한 화성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악보15)

(악보 15) 41, 86, 131마디

41 es und  
 86 Was sie  
 131 Nur du be -

봄의 동경을 3연음으로 표현하다가 시인의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  
 에은 화음적 리듬을 사용하였으며 선율은 고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악보16)

(악보 16) 50-53, 95-97, 140-143

The image displays three systems of musical notation for a vocal piece. Each system consists of a vocal line (treble clef) and a piano accompaniment (grand staff). The key signature is one flat (B-flat major or D minor),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 System 1 (Measures 50-53):** The vocal line begins with a melodic phrase. The lyrics are: "hin? wo - hin? 어디로? / rum? wa - rum? 왜?".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prominent triplet of eighth notes in the right hand, with a *pp* dynamic marking.
- System 2 (Measures 95-97):** The vocal line continues with: "ab? hin - ab? 아래로? / du? und du? 너는?". The piano accompaniment maintains the triplet pattern with a *pp* dynamic marking.
- System 3 (Measures 140-143):** The vocal line concludes with: "du, nur du! 오직 그대!".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ff* dynamic marking and a crescendo leading to a final chord.

## 제 4 곡 Ständchen 세레나데

### 1) 가사내용

#### Ständchen

Leise flehen meine Lieder  
Durch die Nacht zu dir;  
In den stillen Hain hernieder,  
Liebchen, komm zu mir!

Flüsternd schlanke Wipfel rauschen  
In des Mondes Licht,  
Des Verräters feindlich Lauschen  
Fürchte, Holde nicht.

Hörst die Nachtigallen schlagen?  
Ach! sie flehen dich,  
Mit der Töne süßen Klagen  
Flehen sie für mich.

Sie verstehen des Busens Sehnen,  
Kennen Liebesschmerz,  
Rühren mit den Silbertönen  
Jedes weiche Herz.

Laß auch dir die Brust bewegen,  
Liebchen, höre mich,  
Bebend harr ich dir entgegen!  
Komm, beglücke mich!

#### 세레나데

고요하게 애원하는 나의 노래는  
밤을 타고 그대에게로 가네요.  
조용한 이 숲으로 내려오세요,  
사랑이여, 내게로 오세요!

늘씬한 나무들이  
달빛 아래서 속삭이고 있군요.  
누군가 엇들은 것을 드러내지 않을까  
겁내지 마세요, 귀여운 그대.

밤 피꼬리 우는 소리 들리나요?  
아! 그들은 애원하고 있어요.  
달콤한 비탄의 목소리로  
나를 위해 애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슴속의 그리움을 알며  
사랑의 고통을 알며,  
은빛 목소리로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지지요.

그대의 마음도 움직이세요.  
사랑이여, 내 말을 들어요.  
나 떨면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와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오!

## 2) 형식 분석

이 곡은 3/4 박자, d 단조, Moderato (Mäßig) 빠르기로 된 2부형시의 변형된 유절 형식을 가지고 있는 곡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달빛 창가에서 기타반주로 애원을 노래하는 세레나데를 분산화음의 반주형태로 이 곡에 잘 표현하고 있다.

곡 전체의 형식과 조성은 다음과 같다.

형식	제 1 부							제 2 부			
	전주	A	간주	A'	간주	B	B'	C	간주	C'	후주
마디	1-4, 29-36	5-8, 37-40	9-10, 41-42	11-14, 43-46	15-16, 47-48	17-22, 49-54	23-28, 55-60	61-66	67-68	69-76	77-82
중심 조성	d	d	d	F	F	d	d	d, b	d	D, d	d

피아노반주 부분에 나타나는 8분음표의 음형을 분산화음으로 지속적인 staccato로 표현하여 마치 만들린을 연주하는 듯하다. 연주할 때도 되도록 단순하게 해야 하면 좋다. (악보17)

(악보 17) 1-5마디

1

*Mäßig.*

*mp dolce*

Lei - se fle - hen

*pp*

*mp*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한 번 더 강조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성악부분의 선율을 반주부분에서 바로 모방하고 있다. 악보18과 같이 성악 선율을 반주에서 모방하여 나오는 곳이 13-16, 39-42, 45-48, 61-64마디에 나오고 있다. (악보18)

(악보 18) 6-10마디

노래성부의 선율을 반주부에서 3도상의 음으로 진행하므로 화성적 음향을 보충해주며 선율의 흐름이 더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다. (악보19)

(악보 19) 21-22, 27-28, 71-72마디

시작 조성은 d 단조이나 「beglücke mich! 나를 행복하게 해주오!」라는 소  
 망을 외치는 가사내용에 따라 D 장조로 전조하여 끝맺음을 가지고 있다.

(악보20)

(악보 20) 73-82

73

78

## 제 5 곡 Aufenthalt 거주지

### 1) 가사내용

#### Aufenthalt

Rauschender Strom, brausender Wald,  
Starrender Fels mein Aufenthalt.  
Wie sich die Welle an Welle reiht,  
Fließen die Tränen mir ewig erneut.

Hoch in den Kronen wogend sich's regt,  
So unaufhörlich mein Herze schlägt,  
Und wie des Felsen uraltes Erz,  
Ewig derselbe bleibt mein Schmerz.

#### 거주지

흐르는 강물, 요동치는 숲,  
우뚝 솟은 바위는 나의 처소.  
파도에 파도가 연이어 일듯이  
내 눈물도 영원히 새롭게 흐르리.

나무 위에서 굽이치며 움직이듯이  
내 가슴은 끊임없이 두근거리며,  
바위 속 태고의 광석처럼  
내 고통은 영원히 한결같네.

### 2) 형식 분석

이 곡은 2/4박자, e 단조, Allegro non troppo (Nicht zu geschwind, doch kräftig) 빠르기를 가진 2부 형식의 통절기곡으로 인생의 고통과 눈물이 끝없는 아픔을 노래 한 곡이다. 이 곡은 아주 극적인 표정을 담은 곡으로써 무거운 고통을 표현하듯 3연음부를 연속으로 사용하여 인생의 역경을 표현하고 선율이 반주와 대화하는 듯이 서로 주고받고 있다.

곡 전체의 형식과 조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부							제 2 부			코다					
형식	전 주	A	B	간 주	C	D	간 주	E	F	간 주	C	D	간 주	A	B'	후 주
마디	1-6	7-14	15-22	23-26	27-34	35-47	48-55	56-63	64-76	77-80	81-89	90-102	103-110	111-118	119-135	136-141
중심 조성	e	e	a, e	e	e	b	b G	G	e G	e	e	b	b, e	e	e	e

전주의 시작에서 낮은 음의 선율로 주제를 나타내어 시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악보21)

(악보 21) 1-5마디



이곡의 특징 중 하나로 노래 선율과 왼손 반주선율이 대위법적 구조로 나타는데 짧게 서로 주고받는 Canon형태가 슈베르트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며 이 연가곡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계속되는 고통, 절망, 거친 환경을 음악으로 표현하기위해 오른손 반주음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3연음부로 연주하도록 하였으며 노래는 낭송조로 표현하였다. (악보22)

(악보 22) 6-11마디

6  
*mf*  
 Rau-schen-der Strom, brau-sen-der Wald, star-ren-der  
*mf*

과도에 과도가 연이어 일듯이 선율의 진행과 반주의 3연음의 진행이 병행을 하며 선율이 상승하며 긴박감을 표현해 주고 있다. (악보23)

(악보 23) 27-34마디

27  
 Wie sich die Wel-le an Wel-le reht,  
 27  
 37  
 flie-ßen die Tra-nen mir e-wig er-neut,  
 37  
*cresc.*

이곡에서는 낭만파시대곡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반응계적 변화화음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악보24)

(악보 24) 23-25, 48-50, 52-54

The image shows three systems of musical notation for piano accompaniment.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23-25, the second covers measures 48-50, and the third covers measures 52-54. The music is in G major (one sharp) and 2/4 time. The first system starts with a forte (ff) dynamic. The second system features accents (>) and dynamic markings. The third system includes a decrescendo (decresc.) marking. The bass line in the first system has some notes circled, possibly indicating harmonic changes.

이곡은 1연을 다시 반복하는 마지막 페이지에만 포르티시모(ff)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풍부한 음량을 가지고 연주에 임해야 한다. (악보25)

(악보 25) 118-124마디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vocal line and piano accompaniment, measures 118-124. The key signature is G major (one sharp) and the time signature is 2/4. The vocal line has the following lyrics: "halt, rau-schen-der Strom, brau-sen-der Wald, star-ren-der Fels,". The piano accompaniment includes dynamic markings: *poco f*, *f*, *cresc.*, and *ff*. The final measure (124) is enclosed in a box, indicating a repeat of the first measure of the system.

제 6 곡 In der Ferne 먼 곳에서

1) 가사 내용

**In der Ferne**

Wehe, den Fliehenden,  
Welt hinaus ziehenden!  
Fremde durchmessenden,  
Heimat vergessenden,  
Mutterhaus hassenden,  
Freunde verlassenden  
Folget kein Segen, ach!  
auf ihren Wegen nach!

Herze, das sehenede,  
Auge, das tränende,  
Sehnsucht, nie endende,  
heimwärts sich wendende!  
Busen, der wallende,  
Klage, verhallende,  
Abendstern, blinkender,  
hoffnungslos sinkender!

Lüfte, ihr säuselnden,  
Wellen, sanft kräuselnden,  
Sonnenstahl, eilender,  
nirgend verweilender:  
Die mir mit Schmerze,  
ach! dies treue Herze brach,  
Grüßt von dem Fliehenden,  
Welt hinaus ziehenden.

**먼 곳에서**

가연다.  
이 세상 등지고 떠난 사람들!  
낮선 땅을 헤매며,  
고향을 잊고,  
고향집을 미워하며,  
친구들을 버린 사람들,  
아, 그들이 가는 길에  
축복은 없네!

그리운 마음,  
눈물에 젖은 눈,  
고향을 향한  
그칠 줄 모르는 그리움이여!  
요동하는 가슴,  
덧없이 울리는 탄식,  
반짝이다가  
희망 없이 지는 저녁별이여!

속삭이는 바람아,  
잔잔히 이는 파도여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는 햇살이여,  
고통스레,  
아! 나의 정한 마음을 부서버린 그녀에게  
세상 등지고 떠난 사람의  
안부를 전해다오.

2) 형식 분석

이 곡은 3/4박자, b단조, Lento Assai (Ziemlich langsam) 빠르기로 된 2부 형식의 유절 가곡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방랑자의 마음을 나타내어 우울함과 광기가 극적으로 표현된 곡이다.

곡 전체의 형식과 조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부				제 2 부				
형식	전주	A	간주	A'	간주	A"	간주	A'''	후주
마디	1-7	8-29	30-36	37-58	59-65	66-87	88	89-116	117
중심 조성	b	D, b	b	D, b	b	B, D	B	B <sup>b</sup> , g <sup>#</sup>	b

처음 전주 부분은 고향을 잊고 낯선 땅을 헤매며 방황하는 사람의 심리를 느린 템포로 스포르찬도(fzp)의 사용과 내성부위 16분 음표를 통해 순간 회오리바람이 불듯 몰아치다 사라지게 표현하고 있다. (악보26)

(악보 26) 1-7마디



낭만 음악 기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반응계적 진행이 쓰여 졌으며 18마디의 Bb 장조에서 21마디 D장조로 급격한 전조로 고향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시인의 마음을 슈베르트가 잘 표현 한 것을 볼 수 있다. (악보27)

(악보 27) 15-29마디

‘속삭이는 바람아, 잔잔히 이는 파도’를 표현하는 부분에서 반주부에 오른손과 왼손이 4:3의 엇갈리는 리듬으로 생동감을 표현하였다. (악보28)

(악보 28) 66-69마디

선율의 진행을 그 다음 마디의 반주부에서 반복함으로써 메아리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악보29)

(악보 29) 90-93마디

90 säu - - seln-den, Wei - len, sanft kräu - - seln-den,

80-81마디의 선율을 82-83마디에 보면 장2도 위로 동형진행하고 있다.

(악보 30) 80-83마디

80 gruß t von dem File - hen-den Welt hin - aus zie - - hen-den,

82 장2도 동형진행 mf

## 제 7 곡 Abschied 이별

### 1) 가사 내용

#### Abschied

Ade! du muntre, du fröhliche Stadt, ade!  
Schon scharret mein Rößlein mit lustigem fuß;  
Jetzt nimm noch den letzten, den scheidenden Gruß.  
Du hast mich wahl niemals noch trurig gesehn,  
So kann es auch jetzt nicht beim Abschied geschehn.

Ade, ihr Bäume, ihr Gärten so grün, ade!  
Nun reit ich am silbernen Strome entlang,  
Weit schallend ertönet mein Abschiedsgesang;  
Nie habt ihr ein trauriges Lied gehört,  
So wird euch auch keines beim Scheiden beschert.

Ade, liebe Sonne, so gehst du zur Ruh, ade!  
un schimmert der blinkenden Sterne Gold.  
Wie bin ich euch Sternlein am Himmel so hold;  
Durchziehn wir die Welt auch weit und breit,  
Ihr gebt überall uns das treue Geleit.

Ade, ihr freundlichen Mädglein dort, ade!  
Was schaut ihr aus blumenumduftetem Haus  
Mit schelmischen, lockenden Blicken heraus?  
Wie sonst, so grüß ich und schaue mich um,  
Doch nimmer wend ich mein Rößlein um.

Ade! du schimmerndes Fensterlein hell, ade!  
Du glänzest so traulich mit dämmerndem Schein,  
Und ladest so freundlich ins Hüttchen uns ein.  
Vorüber, ach, ritt ich so manches Mal,  
Und wär es denn heute zum letzten Mal.

#### 이별

안녕! 즐거이 환호하는 도시여, 안녕히!  
나의 말이 발굽질하며 기다리고 있네.  
이제 내 마지막 작별인사 받아 다오.  
너는 슬퍼하는 내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지.  
작별의 이 순간에도 슬퍼할 순 없네.

안녕, 나무들, 푸른 정원들도 안녕히!  
이제 나는 은빛 강물을 따라 떠나가리.  
이별의 노래를 멀리 울리면서,  
너희는 슬픈 노래 들어본 적 없겠지.  
떠나는 지금도 그런 노래 선사하진 않으리.

안녕, 사랑스런 태양아, 쉬러가는 구나, 안녕히!  
이제 반짝이는 금빛 별들이 빛나겠구나.  
하늘의 별들을 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 넓고 먼 세상을 지나갈 때  
너희는 어디서나 우리의 진정한 동반자.

안녕, 저기 상냥한 아가씨들, 안녕히!  
향기로운 꽃 만발한 집에서  
장난기 어린 유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나?  
전 같으면 나도 발길을 돌려 인사했겠지.  
그러나 이제 말머리를 돌리지 않으리라.

안녕! 밝은 창이여, 안녕히!  
너는 희미한 빛으로 정답게 빛나며  
다정하게 우리를 오르막으로 초대하네.  
아, 그렇게 여러 번 지나갔던 곳,  
오늘이 마지막 되겠지.

Ade, ihr Sterne, verhüllet euch grau! Ade!  
 Des Fensterleins trübes, verschimmerndes Licht  
 Ersetzt iht unzähligen Sterne uns nicht;  
 Darf ich hier nicht weilen, muß hier vorbei,  
 Was hilft es, folgt ihr mir noch so treu!

안녕, 별들아, 너희 빛을 가리거라! 안녕히!  
 너희들 수많은 별들도  
 꺼져 가는 작은 창이 빛을 대신할 순 없네  
 이 곳에 머물 수 없다면 지나가야겠지.  
 너희가 성실히 나를 따른 들 무슨 도움 있으랴!

## 2) 형식 분석

이 곡은 4/4박자, E♭ 장조, Allegro moderato (Mäßig geschwind)의 빠르기로 3부로 된 유절 가곡 형식이다.

이별의 슬픈 마음과 새로운 곳의 희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민요 선율을 가져와서 작곡한 곡이다. 밝은이별 노래로 멜로디가 다섯 번이 되풀이되는 변화된 유절형식을 가지고 있다.

곡 전체의 형식과 조성은 다음과 같다.

형식	전주	A	간주	A'	간주	A	간주	A''	후주
마디	1-8	9-28	29-35	36-55	56-58	59-78	79-83	84-107	108-117
중심 조성	E♭	E♭	E♭, A♭	A♭, D♭	A♭	E♭	e♭	C♭, e♭, f	E♭

이곡의 전반적인 반주 패턴은 말발굽소리를 형상화 한 것인데, 반주 음형을 보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별을 고하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31)

(악보 31) 1-9마디

*Mäßig geschwind.*

5

*mp*  
A - de! du

*pp*

정든 마을에 안녕을 고하는 8-13마디의 선율이 곡 전체에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35-38, 50-53, 58-61 마디를 예로 들 수 있다. (악보32)

(악보 32) 8-13마디

5

8

*mp*  
A - de! du

*pp*

10

mun - tre, du fröh - li - che Stadt, a - de! Schon

선율의 진행을 보면 3도 관계의 진행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악보33)

(악보 33) 22-24 마디

22

3도 진행

kann es auch jetzt nicht beim Abschied geschehn. A - de, du

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나 할 수 있는 Ade! 안녕! 이란 말에 슈베르트는 가장 긴 음가를 주었고 각각의 음 높이도 다르게 작곡하여 각각의 연마다 느낌을 다르게 하였다. (악보34)

(악보 34) 8-9, 11-12, 23-24, 26-28

(35-36, 48-55, 83-84, 86-88, 102-103, 105-107)마디

8

*mp*

A - de! du

*pp*

11

a - de!

24

A - de,

27

A - - de!

6절로 이뤄진 이 음악은 떠나감을 아쉬워하는 것이 어른거리며 보이지만 달리는 조랑말의 발굽소리가 그것을 누르듯 피아니시모(pp)로 표현하며 아주 멀리 사라져 가는 것을 잘 표현해야 한다.

## 제 8 곡 Der Atlas 아틀라스 신

### 1) 가사 내용

#### Der Atlas

Ich unglückselger Atlas!  
eine Welt,  
Die ganze Welt der Schmerzen  
muß ich tragen.  
Ich trage Unertägliches,  
und brechen Will mir das Herz im Leibe.

Du stolzes Herz,  
du hast es ja gewollt!  
Du wolltest glücklich sein,  
unendlich glücklich,  
Oder unendlich elend,  
stolzes Herz,  
Und jetzo bist du elend!

#### 아틀라스 신

난 불행한 아틀라스!  
한 세계를,  
모든 고통의 세계를  
나 혼자 짊어져야 하네.  
나 혼자 짊어져야 하네.  
내 마음은 무너지려 하네.

너 오만한 마음아,  
네가 원했던 일이다!  
너는 행복하길 원했지.  
한없이 행복하길.  
또는 엄청나게 가련함을,  
오만한 마음아,  
그래서 넌 이제 가련해졌구나!

아틀라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제우스신에게 반역한 죄로 머리위에 궁창을 떠받들고 지내야 하는 운명을 가진 자로써 그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고뇌함을 비유하여 하이네가 시를 썼고 아틀라스라는 제목이 원래 시에는 붙어있지 않고 슈베르트가 곡을 붙이면서 그 제목을 갖다 썼다.<sup>20)</sup>

---

20) Capell Richard, 「Schubert가곡」, 서울 : 삼호출판사 1988 p226

2) 형식 분석

이 곡은 3/4박자, g단조, poco Allegro (Etwas geschwind) 빠르기로 되어진 3부 통절가곡 형식이다.

곡 전체의 형식과 조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형 식	전주	A	간주	B	A'	후주
마 디	1-4	5-20	21-22	23-39	40-52	53-56
중심조성	g	b	B	B ,b, e, g	E b ,g	g

4마디 전주로 시작되는 이 곡의 반주부분을 보면 오른손의 트레몰로로 되어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음향은 마치 교향악단의 울림을 듣는 듯하며 비극적인 암시를 더 해준다. 왼손의 베이스 선율은 노래 성부를 2옥타브로 모방하여 노래 선율과 동일한 음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고통의 무게를 잘 표현하고 있다. (악보35)

(악보 35) 1-7마디

*Etwas geschwind.*

4  
mf  
Ich un - glück - sel - ger At - las, ich un - glück - sel - ger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떨쳐 버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듯 상행하는 반음계적순차진행을 사용하여 극도의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17마디에서 변화화음(Altered chord)으로 b단조의 #vi<sub>7</sub>화음이 쓰여 G→G#의 반음계적 진행으로 그 고통을 더 잘 드러나게 묘사해 주고 있다. 연주자는 이 부분에 나오는 크레센도(crescendo)를 극적으로 잘 표현해야 듣는 이의 마음에도 그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악보36)

(악보 36) 16-18마디

16

*cresc.*

tra - - ge Un - er - - träg - li - ches, und bre - chen will mir das Herz im

*cresc.*

b: # vi<sub>7</sub>

2부분이 시작되는데 곳의 조성은 g단조에서 B장조로 전조되어 시작한다. 거만한 자의 마음을 비웃듯이 슈베르트는 트레몰로의 반주에서 3연음의 셋잇단음표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악보37)

(악보 37) 21~25마디

21

*mf*

Du stol-zes Herz, du hast es ja ge

21

*fp* *fp* *fp* *fp* *fp*

다시 반복 되는 시어를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겹 점음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악보 38) 39~42마디

이 곡의 화음 사용의 특징 중 하나인 음향의 단조로움 보다 불협화음으로 음향의 효과를 주어 아틀라스의 고통을 표현하였다. (악보39)

(악보 39) 53-56마디

## 제 9 곡 Ihr Bild 그녀의 초상

### 1) 가사 내용

#### Ihr Bild

Ich stand in dunkeln Träumen  
Und starrt' ihr Bildnis an,  
Und das geliebte Antlitz  
Heimlich zu leben begann.

Um ihre Lippen zog sich  
Ein Lächeln wunderbar.  
Und wie von Wehmutstränen  
Erglänzte ihr Augenpaar.

Auch meine Tränen flossen  
Mir von den Wangen herab.  
Und ach! ich kann es nicht glauben,  
Daß ich dich verloren hab!

#### 그녀의 초상

나 어두운 꿈속에 있었네.  
그녀의 초상을 주시하노라니.  
사랑스런 그 얼굴이  
은밀하게 살아나기 시작했네.

그녀의 입가에는  
놀라운 미소가 퍼졌네.  
그리고 슬픔의 눈물처럼  
그녀의 두 눈이 반짝였네.

그리고 나의 눈물도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네.  
아,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내가 너를 잃어버렸다니!

이 곡은 사랑하는 여인의 초상 앞에서 그녀를 잃어버린 한 남자의 그리움과 고통을 노래하고 있는 시로써 슈베르트는 이 곡을 간단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선율을 그리고 있다.

2) 형식 분석

이 곡은 2/2박자, bb 단조, Lento (Langsam)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3부로 구성되어 있는 통작 가곡이다.

형식	전주	A	간주	B	간주	A'	후주
마디	1-2	3-12	13-14	15-22	23-24	25-34	35-36
중심조성	Bb	bb, Bb	Bb	g	bb	bb, Bb	bb

전주를 Bb 음으로 2번 피아니시모로 울리게 하였는데 이는 저 멀리서 아련하게 들려오는 종소리와 흡사하다. 2번의 종이 울리고 나면 노래가 시작되는데 어둠의 꿈속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을 낭송하듯이 큰 도약 진행이 없이 움직이며 피아노 반주와 unison 노래하고 있다. (악보40)

(악보 40) 1-6마디

*Langsam.*

Ich stand in dun - kein Träu - men und

14마디에서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져가는 모습을 온음진행을 통해 표현하였다. (악보41)

(악보 41) 14-17마디

14  
Um ih - re Lip - pen zog sich ein Lächelnwun - der -

*pp*

전체의 흐름은 4도 이상의 큰 도약이 없이 어두운 꿈속에서 독백하듯이 서 있는 시의 내용에 너무도 잘 어울리도록 순차진행이 사용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의 애통함을 마지막 후주에 가서 반주부분에 반음계음으로 하행진행하며 표현함으로써 그리움과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의 애절함을 잘 그려내고 있다. (악보42)

(악보 42) 33-36마디

33  
dich ver - lo - ren hab!

*f*

이 곡은 시작부터 끝까지 도약도 심하지 않고 단순, 간결한 선율을 가지고 있지만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음악에 표현한 곡이다

제 10 곡 Das Fischermädchen 고기잡이 아가씨

1) 가사 내용

**Das Fischermädchen**

Du schönes fischermädchen,  
Triebe den Kahn ans Land;  
Komm zu mir und setze dich nieder,  
Wir kosen Hand in Hand.

Leg an mein Herz dein Köpfchen  
Und fürchte dich nicht zu sehr;  
Vertraust du dich doch sorglos  
Täglich dem wilden Meer!

Mein Herz gleicht ganz dem Meere,  
Hat Sturm und Ebb und Flut,  
Und manche schöne Perle  
In seiner Tiefe ruht.

**고기잡이 아가씨**

어여쁜 고기잡이 아가씨.  
배를 물에 대어요.  
내게로 와 앉아서,  
우리 손을 어루만져요.

작은 머리를 내 가슴에 기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날마다 험한 바다도  
그대는 의연히 맞섰잖아요!

내 마음도 바다와 똑같아요.  
폭풍과 썰물과 밀물이 있고,  
아름다운 많은 진주들이  
그 아래 깊은 곳에 숨어 있네요.

어부의 딸을 사랑하고 있는 남자의 마음을 노래한 곡으로 슈베르트가 잘  
사용하였던 6박자의 뱃노래 풍으로 바닷물이 출렁거림을 표현하였다.

2) 형식 분석

이 곡은 6/8박자, A b 장조, poco animato (Etwas geschwind) 빠르기로 변화된 유절 형식을 가지고 있다.

곡 전체의 형식과 조성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제2부				제3부		
형식	전주	A	B	간주	A'	B'	간주	A	B	후주
마디	1-7	8-17	18-23	24-28	29-38	39-44	45-49	50-59	60-65	66-72
중심 조성	A b	A b , b b	b b , A b	A b , C b	C b , d b	d b , C b	C b	A b	b b , A b	A b

과도가 춤을 추고 있는 듯 6/8박자의 리듬으로 바닷물의 출렁거림을 묘사했으며 또한 사랑스러운 소녀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밝고 경쾌함을 강조하기 위해 장조의 조성과 빠른 템포를 선택한 슈베르트의 시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 엿보인다. (악보43)

(악보 43) 1-5마디



10마디에서 상행하는 성악선율을 12마디 반주에서 같은 멜로디를 canon처럼 따라하는데 빨리 소녀가 물에 배를 대고 내 곁에 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다. (악보44)

(악보 44) 10-14마디

21, 63마디에서는 시어를 강조하기 위해 슈베르트는 그의 가곡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7도 도약 진행을 사용하여 색채감을 더하였다. (악보45)

(악보 45) 21, 63마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은 31-32마디의 선율을 그 다음 반주에서 모방하여 연주하는데 오히려 더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반주부에서 Gb음을 한 옥타브위로 연주하게 한다. (악보46)

(악보 46) 31-34마디

30 31  
Köpf - chen und fürch - te dich nicht zu sehr; — ver -

41마디부터 보면 사나운 파도에 두려움 없이 자신을 맡기니 내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달라는 소망을 표현하는 가사를 크레센도(crescendo)를 사용하여 더 강조하며 반복해 주고 있다. (악보47)

(악보 47) 41-44마디

41 tag-lich dem wil - den Meer, — tag-lich dem wil - den Meer!

이 곡은 시작부분 반주를 할 때 반주자는 잔잔한 파도의 움직임에 상상하며 큰 동작이 나오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 전체적으로는 강박과 약박의 느낌을 놓치지 말아야하면서도 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레가토를 만들어 연주해줘야 한다.

## 제 11곡 Die Stadt 도시

### 1) 가사 내용

#### Die Stadt

Am fernen Horizonte  
Erscheint, wie ein Nebelbild,  
Die Stadt mit ihren Türmen,  
In Abenddämmerung gehüllt.

Ein feuchter Windzug kräuselt  
Die graue Wasserbahn;  
Mit traurigem Takte rudert  
Der Schiffer in meinem Kahn.

Die Sonne hebt sich noch einmal  
Leuchtend vom Boden empor,  
Und zeigt mir jene Stelle,  
Wo ich das Liebste verlor.

#### 도시

저 멀리 지평선에  
안개 형상처럼 보이는  
도시와 탑들은  
저녁놀에 싸여 있네.

습한 바람 불어 와  
젓빛 수면에 잔물결 일으키고  
내 배의 사공은  
서글픈 박자로 노를 젓는 구나.

태양은 다시 빛나며  
대지에서 솟아오르고.  
사랑했던 내 님을 잃은  
그 자리를 보여주네.

이 곡은 사랑하던 여인을 잃은 도시의 형상을 물 위에서 바라보는 남자의 심정은 뱃사공의 노를 젓는 모습까지도 슬퍼 보인다는 내용을 슈베르트는 시각적인 형상과 가슴 시리도록 아파하는 슬픔을 너무도 잘 묘사하며 작곡을 하였다.

## 2) 형식 분석

이 곡은 3/4박자, C단조, Allegro (Mäßig geschwind) 빠르기를 가진 3부 형식으로 된 통절 가곡이다.

곡 전체의 형식과 조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형식	전주	A	간주	B	간주	A'	후주
마디	1-6	7-14	15-17	18-25	26-27	28-35	36-40
중심조성	cm						

낮은음의 옥타브의 트레몰로와 감7도 화음의 아르페지오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도시의 형상을 묘사하였으며 또 감7도의 화음을 8분 음표와 16분 음표의 슬러로 연결하여 뱃사공이 서글픈 박자로 노를 젓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쓰여 졌다. 이와 같은 선율은 곡 전체에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악보 48) 1-4마디

*Mäßig geschwind.*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shows the piano introduction with a tremolo in the bass and a melodic line in the treble. The second system shows the first four measures of the main theme, featuring a tremolo in the bass and a melodic line in the treble with a 'dimin.' marking at the end.

노래 선율은 c단조의 I 화음의 5음으로 시작하여 큰 도약 없이 서서히 상승하며 낭송하듯이 하는데 반주와 선율을 같이하고 있다. (악보49)

(악보 49) 6-14마디

A 와 A'부분에서 리듬변형이 보이는 부분이 8마디와 29마디, 12마디와 33마디, 11마디와 32마디인데 32마디에서는 d음이 db으로 Neapolitan 6th로 변한다.

(악보 50)8⇔29, 12⇔33, 11⇔32

이 곡의 33-34마디에 나오는 ‘ Wo ich das Liebste verlor ’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자의 슬픔을 가지고 그 감정을 폭발시키듯 ff 를 표현하면 좋다.

(악보 51) 33-34마디

전주와 간주부분이 같은 후주부분에서 p에서 pp로 연주하며 dim.로 서서히 작아지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슈베르트는 곡을 위해 시의 구절을 반복하여 쓰기도 하는데 이 곡에서는 어떠한 말도 반복하지 않았다.

제 12 곡 Am Meer 바닷가에서

1) 가사 내용

Am Meer

Das Meer erglänzte weit hinaus  
Im letzten Abendscheine;  
Wir saßen am einsamen Fischerhaus.  
Wir saßen stumm und alleine.

Der Nebel stieg, das Wasser schwoll,  
Die Möwe flog hin und wieder;  
Aus deinen Augen, liebevoll,  
Fielen die Tränen nieder.

Ich sah sie fallen auf deine Hand  
Und bin aufs knie gesunken;  
Ich hab bon deiner weißen Hand  
Die Tränen fortgetrunken.

Seit jener Stunde verzehrt sich mein Leib,  
Die Seele stirbt vir Sehnen;  
Mich hat das unglückselge Weib  
Vergiftet mit ihren Tränen.

바닷가에서

마지막 저녁 햇살 받으며  
바다는 저 멀리까지 빛났네.  
우리는 쓸쓸한 어부의 집 앞에  
단둘이 말없이 앉아 있었지.

안개가 피어오르고, 물이 불어나고,  
갈매기는 이리저리 날았네.  
사랑스런 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

네 손에 떨어지는 눈물을 보고,  
나 무릎을 꿇었네.  
네 하얀 손에 고인  
눈물에 계속 받아 마셨지.

그 후에 내 몸은 쇠잔해지고  
내 영혼은 그리움에 죽어 가니,  
그 불행한 여자가  
눈물로 나를 독살한 것이리라.

하이네의 시집 '귀향'의 16번째 시로 쓴 이곡은 마지막 저녁 햇살이 비치는 어부의 집 앞에 앉아있는 연인들의 이야기를 바닷가의 저녁 풍경을 그려가며 사랑하는 여인의 불행을 같이 나누는 내용을 가진 곡이다. 이곡은 슈베르트의 가곡 중 최고 걸작품 중의 하나이다.

2) 형식 분석

이 곡은 2/2박자, C장조, Molto Adagio (Sehr langsam)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2부 형식의 변형된 유절 가곡이다.

곡 전체의 형식과 조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부				제 2 부				
형식	전주	A	간주	B	간주	A'	간주	B'	후주
마디	1-2	3-10	11-12	13-22	23	24-31	32-33	34-43	44-45
중심 조성	C	C	cm	dm, cm	C	C	dm	cm	C

전주와 후주의 반주를 보면 증6화음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화성의 색채로 곡 전체의 무거운 분위기를 암시하며 잔잔한 파도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악보 52) 1-2, 44-45마디

The image shows two musical excerpts. The left excerpt is for measures 1-2, featuring a piano part with dynamics *p* and *pp*, and a vocal line with the instruction *Das A molto*. The right excerpt is for measures 44-45, showing piano accompaniment with dynamics *pp* and *ppp*. Both excerpts are in a 2/2 time signature and C major.

노래가 시작되면 반주는 유니즌(unison)으로 작게 선율을 따라가고 있다. 또 같은 멜로디를 7-9마디에 리듬이 약간 변형되어 나온다. (악보53)

(악보 53) 3-5, 7-9마디

*sotto voce*  
*pp* 3  
Das Meer er-glänz-te weit hin-aus im letz-ten A-band-  
*molto legato*  
wir sa-ßen am ein-sa-men Fi-scher-haus, wir sa-ßen stumm und al-

리듬 변형

B부분인 12마디부터 18마디 반주를 보면 아래 성부가 반응계적 진행을 하며 양손을 32분음표의 트레몰로로 바닷가의 안개와 갈매기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악보54)

(악보 54) 12-13마디

12 *mp*  
Der Ne-bel stieg,  
*pp* *mp*

이곡은 음역이 폭이 D음에서 옥타브위의 F음으로 넓고 *sotto voce*로 최고로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성악가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곡이다. 반주 또한 각 음의 연결을 가능한 부드럽게 연결해야 하는데 옥타브의 화음으로 진행되는 음이기 때문에 음의 울림을 최대한 풍성하고 둥글게 만들어 페달의 도움을 받아 연주해야한다.

## 제 13 곡 Der Doppelgänger 그림자

### 1) 가사 내용

#### Der Doppelgänger

#### 그림자

Still ist die Nacht, es ruhen die Gassen,  
In diesem Hause wohnte mein Schatz;  
Sie hat schon längst die Stadt verlassen,  
Doch steht noch das Haus auf demselben Platz.

밤은 고요하고, 골목길은 한적한데  
이 집에 나의님이 살았었지.  
님은 도시를 떠난 지 오래지만,  
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네.

Da steht auch ein Mensch und starrt in die Höhe,  
Und ringt die Hände vor Schmerzengewalt;  
Mir graust es, wenn ich sein Antlitz sehe -  
Der Mond zeigt mir meine eigne Gestalt.

거기 한 사람이 서서 산을 바라보다가  
고통스럽게 힘껏 두 손을 비비는데,  
그 얼굴 보니 소름 끼치네.  
달빛에 비친 그는 바로 내 모습.

Du Doppelgänger, du bleicher Geselle!  
Was äffst du nach mein Liebesleid,  
Das mich gequält auf dieser Stelle  
So manche Nacht, in alter Zeit?

그대 나의 분신, 창백한 젊은이여!  
어찌 사랑의 괴로움을 따라 겪는가,  
그 옛날 바로 이 자리에서  
수많은 밤 나를 괴롭혔던 그 괴로움을?

하이네의 시로 쓴 마지막 곡인 이 곡은 한밤중에 한적한 골목길에 서서 사랑하던 사람의 살았던 집을 바라보고 옛 사랑을 회상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내가 노래한 시로써 음악과 시의 조화가 훌륭한 곡 중 하나이다.

2) 형식 분석

이곡은 2/2박자, C장조, Molto Adagio(Sehr langsam) 빠르기를 가진 3부 형식의 통절 가곡이다.

곡 전체의 형식과 조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형식	전주	A	간주	B	A'	후주
마디	1-4	5-22	23-24	25-42	43-56	57-63
중심조성	b	b	b	b	d#, b	b

전주의 네 마디는 피아니시모로 고요하고 한적한 밤의 풍경을 그리듯이 낮은 음역의 화음으로 한밤의 때를 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각 마디에 점 2분음표의 음형으로 f#의 지속음을 가진 화음으로 곡을 썼다. 이런 음형이 전체에서 6번이 사용되고 곡 전체에 이 음형의 변주가 사용되었다.

(악보 55) 1-4마디



곡의 묘사를 단순한 리듬의 반주위에 낭송조로 한 4마디의 짧은 프레이즈를 가진 이곡은 슈베르트의 새로운 서정적 작품 기법이다. 3절에서 분신에게 말을 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반음계적 진행으로 긴장감의 극치에 이르게 하고 있다. (악보56)

(악보 56) 42-53마디

42 *p* Du Dop-pel - gän-ger, du blei-cher Ge-sel-le! was äiffst du nach mein *mf*

*decresc.* *p* acce - lerando *cresc.* *ffz*

48 *f* Lie-bes-leid, das mich gequält auf die-ser Stel-le so man-che Nacht, in *ff* *mp*

마지막 종지부분에서 picardy 3rd화음 사용을 하여 화성진행에 변화를 주어 화자의 체념을 표현하였다.

(악보 57) 56-63마디

Picardy 3rd

*ppp*

이 곡은 음악과 시의 조화가 경이로운 곡이다. 곡의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는 자유롭겠지만 반주는 정확한 박자로 타종을 울리듯 연주해 주어야 한다. 노래선율은 낭송조로 음산한 분위기를 묘사하며 부르도록 작곡되어 음악의 표현이 피아니시모에서 포르티시시모로 되어있으므로 이곡을 연주하는 자는 많은 상상력이 요구되어지고 반주자는 화음과 화음을 연결할 때 울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울림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 제 14 곡 Die Taubenpost 우편 비둘기

### 1) 가사 내용

#### Die Taubenpost

Ich hab eine Brieftaub in meinem Sold,  
Die ist gar ergeben und treu,  
Sie nimmt mir nie das Ziel zu kurz,  
Und fliegt auch nie vorbei.

Ich sende sie viel tausendmal  
Auf Kundschaft täglich hinaus,  
Vorbei an manchem lieben Ort,  
Bis zu der Liebsten Haus.

Dort schaut sie zum Fenster heimlich hinein,  
Belauscht ihren Blick und Schritt,  
Gibt meine Grüße schezend ab  
Und nimmt die ihren mit.

Kein Briefchen brauch ich zu schreiben mehr,  
Die Träne selbst geb ich ihr:  
O sie verträgt sie sicher nicht,  
Gar eifrig dient sie mir.

Bei Tag, bei Nacht, im Wachen, im Traum,  
Ihr gilt das alles gleichm  
Wenn sie nur wandern, wandern kann,  
Dann ist sie überreich.

Sie wird nicht müd, sie wird nicht matt,  
Der Weg ist stets ihr neu;  
Die braucht nicht Locjung, braucht nicht Lohn,  
Die Taub ist so mir treu.

#### 우편 비둘기

내게 시중드는 우편 비둘기,  
아주 충성스럽고 진실하다네.  
내가 원하는 곳에 못 미친 적 없고  
지나쳐 날아가지도 않네

나 매일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비둘기 수없이 날려보냈네.  
기쁨을 준 술한 장소들을 지나  
내 연인의 집까지.

비둘기는 몰래 창을 들여다보면서,  
그녀의 눈빛과 발걸음을 살피고,  
즐겁게 나의 안부 전해 주고는  
그녀의 안부를 받아 왔다네.

나에게 편지 쓸 일 더 없으니  
눈물만 비둘기에게 흘릴 뿐인데,  
오 비둘기는 나의 눈물 견디지 못하니  
그토록 열심히 시중드는구나.

낮이나 밤이나, 깨었을 때나 꿈 꿀 때,  
비둘기는 언제나 한결같다네.  
어디든지 날아갈 수만 있다면,  
비둘기는 너무 행복해 하네.

지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비둘기에겐 그 길은 항상 새롭네.  
칭찬도 보상도 바라지 않는 비둘기,  
나에게 참으로 충실하구나.

Drum heg ich sie ach so treu an der Brust,  
 Versichert des schönsten Gewinns;  
 Sie heißt - die Sehnsucht!  
 Kennt ihr sie? Die Botin treuen Sinns.

그래서 나도 진정으로 가슴에 품어준다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얻었음을 확인하며.  
 비둘기의 이름은 그리움!  
 그대들은 아는가? 진실한 마음의 전령을.

이 곡은 자이들의 시로 슈베르트가 생전에 작곡한 마지막 곡으로 그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지 않은 듯 매우 경쾌한 곡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 충실한 비둘기에 자랑과 칭찬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 2) 형식 분석

이곡은 3/4박자, b단조, Lento assai (Ziemlich langsam) 빠르기를 가진 유절 형식과 통절 형식이 혼합되었다.

곡 전체의 형식과 조성은 다음과 같다.

형식	전주	A	간주	B	간주	A'	coda	후주
마디	1-5	6-25	26-29	30-47	48-51	52-71	72-102	103-106
중심조성	G	G	G	G, B $\flat$	G	G	C, A, G	G

피아노 반주는 전주에서 보여주듯이 전체적으로 분산화음과 당김음 음형으로 되어 경쾌한 전원생활을 그려준다. (악보58)

(악보 58) 1-4마디

*Ziemlich langsam.*

충실한 우편 비둘기에 만족하는 시인의 마음을 조성의 변화(Bb-g-G)로 표현해 주고 있다. (악보59)

(악보 59) 45-51마디

42 *mp* o, sie verträgt sie si - cher nicht, gar eif - rig dient sie mir, *mf* gar eif - rig dient sie

47 mir. Bei

*decresc.*

*p*

Bb:I

g: V<sub>4</sub> G: V<sub>5</sub>

같은 선율이 반복되어진 77-80마디의 선율을 92-95마디에서 화성만 다르게 하며 선율의 음형은 동일하게 하고 있다. (악보60)

(악보 60) 77-80, 92-95마디

후주의 선율은 전주와 똑같이 반복 진행되어 곡의 통일성을 주고 있으며 곡의 특징은 밝고 경쾌하다는 것이다. 당김음으로 그 효과를 만들어 전원의 생활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곡은 V→I도의 완전 정격 종지로 끝맺음을 해주었다. (악보61)

(악보 61) 101-105마디

### Ⅲ. 결론

슈베르트가 죽기 두 해 전인 1826년에 한 비평가가 슈베르트를 비평한 글에 보면 “그의 작곡 기법은 본질적 의미의 가곡에 잘 맞지 않는다. 슈베르트는 차라리 한 곡을 1절로만 연결해 작곡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sup>21)</sup> 라는 비평을 하였다. 이때의 가곡은 유절 가곡으로 시의 내용이 음악의 대본이 되기보다는 자신들의 시가 더 부각되기를 바라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슈베르트는 이런 가곡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유절 가곡과 통절 가곡을 모두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하나의 곡 안에서도 유절과 통절 부분을 결합시켜 놓기까지 했다. 이 가곡집 ‘백조의 노래(Schwanengesang)’를 연구해보니 이런 슈베르트가곡의 특색이 모두 들어 있었다. 백조의 노래는 슈베르트의 가곡에 있어서 마지막 작품에 해당한다. 그가 시에서 받은 영감들을 앞서 작곡했던 곡들에서 더욱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 가곡집에서는 말하듯이 노래하는 서창형식의 사용, 서정적인 선율, 극적인 화성적 색채 등이 어우러진 곡집임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이 작품의 형식을 분류하면, 유절가곡 형식의 곡으로 <3번곡 봄의 동경>, <12번곡 바닷가에서>이 있고, 변형 유절가곡 형식을 사용한 곡으로는 <4번곡 세레나데>, <6번곡 먼 곳에서>, <7번곡 이별> <10번곡 고기잡이 아가씨>, <14번곡 우편 비둘기>가 있고, 통절가곡 형식을 사용한 곡은 <1번곡 사랑의 전령>, <2번곡 병사의 예감>, <5번곡 거주지>, <8번곡 아틀라스>, <9번곡 그녀의 초상>, <11번곡 도시>, <13번곡 그림자>가 있다. 시에 자신만의 음악적 언어를 결합시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강하게 전달해 주고 있으며 곡의 분위기를 살려주기 위해 사용한 전음계적인 색채의 화성으로 심리나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밝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에는 장조로 작곡을 하였고 어둡고 무거운 내용은 단조로 곡의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

21) Ditrech Fischer-Dieskau, **Frans Schubert und seine Lieder**, in sel taschenbuch, 1999, p.15

그리고 노래 선율만으로 표현하기 부족한 것을 반주에서 표현하여 곡의 묘사를 한층 더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노래선율에 대한 화성역할 뿐 아니라 대위선율로 서로 주고받는 등 시와 노래, 반주의 조화로 곡의 분위기를 잘 묘사해 주었다. 가사의 의미와 내용에 따른 음악의 일치로 가곡의 새 지평을 연 인물로 추앙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가곡을 위해 문학적 대작만을 선택을 하던 것을 과감하게 무너뜨리며 자신만의 음악언어로 낭만시대의 독일 가곡의 위치를 예술 가곡으로 한 차원 높은 슈베르트의 곡을 연주하기위해서는 시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해야하고 더 세부적으로 단어, 문장을 통해 가사의 내용을 완벽하게 공부하여야 곡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연주 할 수 있다.

이 가곡집 ‘백조의 노래’는 슈베르트의 의도에 의해서 모아진 가곡집은 아니지만 슈베르트의 생애 중 마지막으로 작곡된 곡들을 모아놓은 가곡집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가곡 스타일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고 연주자는 이런 가곡집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 성악가와 반주자의 이상적인 조화로써 슈베르트가 표현하고자 했던 내용을 청중들에게 잘 전해 주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 서적 및 번역서

- 강만희. 2005. **간추린 19C 낭만 음악사**, 대전: 예광,  
김용환. 2005. **서양음악사 100장면(2)**, 서울: 가람기획.  
이덕희. 2002. **음악가와 친구들**, 서울: 가람기획.  
이덕희. 2003. **음악가의 만년의 죽음**, 서울: 가람기획.  
양일용. 2006. **에피소드로 보는 서양 음악사**, 서울: 태림출판사.  
피종호. 1999. **아름다운 독일시와 가곡**, 서울: 자작나무.  
피종호. 2007. **독일연가곡**, 서울: 유로출판.  
김문자, 노영해, 박미경, 이석원, 허영환. 1993.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II**,  
서울: 심설당.  
민은기, 신혜승. 2008. **서양음악의 이해**, 경기: 음악세계.
- Richard, Capell. 1988. 「Schubert 가곡」 서울 : 삼호출판사  
Gorrell, Lorraime. 1998. **The Nineteenth-Century German Lied**  
(19세기 독일 가곡), 심송학 역. 서울 : 음악 춘추사  
Grout, Donald Jay and Claude V. palisca and J. Peter Burkholder. 2007.  
**A History of Western Music**, 개정 7판. 민은기 오지희 이희경 전정임  
정경영 차지원 역. 서울: 이앤비플러스,  
Kimball, Carol. 2004. **Song**(예술 가곡의 총서) 하권. 채은희 역. 서울: 도서출판 형설  
Longyear, Rey M. 2001. **Nineteenth-Century Romanticism in music**,  
third edition. 김혜선 역. 서울 : 도서출판 다리,

Schneider, Marcel. 1991. **F.Schubert** 김방현 역. 서울: 삼호출판사

## 2. 사전류

편집국 편. 1992.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편집국 편. 1996. **음악용어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3. 학술지 논문

홍세원. 1992. **슈베르트 예술가곡의 역사적 고찰** . 서울: 연세 교육 과학학술지,  
p.117-130

김정석, 1991. **독일리트의 고찰 ; 슈베르트에서 R 시트라우스에 이르는**. 한국음악평론  
가협회 음악평론, p.59-88

김순향. 2001. **슈베르트가곡에 나오는 시와 가사의 관계 연구**. 여주 대학 출판부,  
p.61-61

이경희. 2003. **18-19세기 음악청중 형성과정에서 살롱의 역할** ,한국학술진흥재단,  
p.155-179,

## 4. 학위논문

장성음. 1999. **F.Schubert의 연가곡<Schwanengesang>D.957의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이상은. 1999. **F.Schubert의 연가곡<Schwanengesang>D.957의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 효성 카톨릭 대학교 대학원

나준영. 2006. **독일 예술 가곡에 나타나는 사회적 고찰(슈베르트, 슈만, 말러  
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김수정. 2005. **F.Schubert의 연가곡<Die Schöne Müllerin>에 대한 연구 분**

석 ; 연주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제 신학대학원  
임용수. 2008. 슈베르트 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연주를 위한 성  
악적연구. 석사 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5. 웹사이트

<http://www.riss4u.net>

<http://www.wikipedia.org>

6. 악보

슈베르트 가곡집 I .2008. 서울: 태림출판사

# ABSTRACT

A Study on the songs 「Schwanengesang」 D.957  
by F. Schubert

Kim, Jeong-Sun

The Department of Accompany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a study about Schwanengesang D.957 by Franz Peter Schubert(1797~1828) composed in 1828, the last year of his life. Unlike the others, this posthumous collection of 14 songs by Schubert was bound and named by the publisher. It uses poems by three poets and the title is a reference to an ancient belief that the Mute Swan is completely mute during its lifetime until the moment just before it dies, when it sings one beautiful song.

Schubert was a 19th century German Romantic composer. He lived a short life of thirty one years, but he composed works of various genre such as symphony, chamber music, piano works, opera, and about six hundred lieds. At the time when strophic wa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Schubert expressed the emotion of poems in various forms, not limited to the form of strophic. His songs expressed the mood of poems not only through the melody of the song but also through the harmonic color and the rhythm of accompaniment. Making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melody and the

accompaniment, he raised lied to a higher level of art and made it important in music history. Moreover, he invented a form of through-composed songs by composing *Die schöneMüllerin* and *Winterreise* in which he set poems of Wilhelm Muller(1794-1827) to music.

This thesis analyzed how the interpretation of the poem was expressed in music, how the close relationship of melody and accompaniment was expressed through rhythm, beat, key and tempo, and lastly, how the composing method of the work developed.